김치, 中 수출길 열렸지만 '가시밭길'





중국에 김치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지만 광주·전남지역 업체들은 여전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사진은 지난 광주세계김치축제 모습

〈광주일보 자료사진〉

│한·중 정상회담서 절임채소 기준 개정 등 합의

국산 3배 비싸 가격 경쟁력 없고 중국김치 선호 풍토 광주, 국내 점유율 1.2% … 작년 수출 1억4400만원 포장비·운송비 지원 등 정부 수출확대 후속책 필요

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지만 광 주·전남지역 김치 생산 업체들은 여전 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중국에 서 만든 김치에 비해 국산 김치 가격이 최고 3배가량 비싼데다 중국인이 중국 산 김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처럼 한국산 김치가 맛과 가격에서 중국산 김치를 앞지르지 못하면서 한국 산 김치가 중국 내에서 팔리는 '김치의 세계화'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. 게다가 중국인들이 중국산 김치를 더 선호하는 '김치의 현지화' 마저 진행되고 있다.

따라서 정부에서 지역 김치생산 업체 를 위해 포장비와 운송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중국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적 극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

2일 광주지역 김치업계에 따르면 최 근 중국 내에서 중국산 김치의 판매는 늘고 있지만 한국산 김치의 인기는 시들 하다. 지난달 31일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김치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정 부 발표와는 달리, 중국 내 한국 산 김치 의 수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.

특히 대부분 영세한 지역 업체들이 중 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

실제, 지난 7월 세계김치연구소가 광

주·전남지역 김치 업체와 함께 중국 상 하이에서 진행한 현지 설명회 결과를 보 면 중국 김치 수출길이 '가시밭길'임을 알수있다.

상하이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행 된 품평회에서 이 지역 업체의 김치보다 되레 중국산 김치가 맛있다고 평가한 소 비자도 있었다. 광주지역 A업체와 중국 김치를 비교한 결과 소비자들의 맛있다 는 평가는 각각 49%, 51%로 중국산 김 치를 더욱 선호했다.

선호도가 높았던 B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과의 비교 평가에서 각각 52%. 48%에 머물렀다.

이처럼 중국인들이 자국의 김치를 선 호하는 것은 가격 차이와 중국산에 길든 입맛 탓으로 풀이된다. 한국산 김치가 좋은 것은 알지만 중국의 저가 김치에 비해 비싸고, 중국산 김치가 보편화돼 입맛도 중국산 김치에 익숙하다는 것이

이 행사에 참여한 광주지역 한 업체

관계자는 "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이 국내 식당에서 대부분 중국산 김치를 먹은 뒤 중국산 김치 맛이 한국산 김치 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"고 말했다.

수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 는 것도 문제다. 광주 김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전국의 1.2%에 불과하 고, 수출실적은 해마다 들쭉날쭉해 지난 해 수출액은 18t(1억4400만원)에 그치

이에 지역 김치 업체들은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수 출 지원책과 마케팅 지원 등을 요구하고

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 식품부는 한·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 부가 우리나라 김치 수출시 적용하던 절 임채소(파오차이)의 기준 개정을 조속 히 완료하기로 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이달 안에 중국의 김치시장 규모 등 을 분석한 시장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 다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

▲ 코스피 2035.24 (+5.77)

금리 (국고채 3년) 1.66% (0.00)

▼ 코스닥 680.01 (-3.62)

▼ 환율 (USD) 1137.00원 (-3.10)

내년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

연 매출 2억 이하 0.7%P·10억 이하 0.3%P

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 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 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.

영세·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.7% 포인트,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 점은 평균 0.3%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.

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 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, 조정안에 따라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.5%를 적 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.8%로, 2.0%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~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.3%로

종전보다 각각 0.7%포인트 인하된다.

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 맹점(연매출 3억원 초과~10억원 이하)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. 2%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.9%로 0.3%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.

이밖에 현재 2.7% 수준인 수수료율 상 한은 2.5%로 하향조정한다.

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 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.0%에서 0.8%로 낮추기로 했다. 그러나 연매출이 10억원 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.



중소형 면적·최적 입지·낮은 분양가 '송정 센텀 스타힐스' 청약 열기 고조

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 데 최근 조합원 모집에 나선 광주시 광산 구 소촌동 '송정 센텀 스타힐스' 청약열기 가 뜨겁다.

송정 센텀 스타힐스는 전용면적 59·74· 79㎡의 445세대로 구성됐다. 〈조감도〉 평 당 분양가격이 형별·층수에 따라 600만원 중·후반대로 저렴한 편이어서 실수요자 들과 투자자에 인기가 높다.

아파트가 들어설 소촌동 일대는 광주송 정역 개발과 민자역사 개발, 우산동 일대 재개발 등 호재가 겹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또 쾌적한 단지 구성과 함께 중소형 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내부 설계 등 이 적용돼 실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

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송정 센텀 스타 힐스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일 기준으로 광주·전남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한

다만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다.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을 지닌 세대주도 신청 자격이 있다.

모델하우스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 시청 맞은편 제갈량비즈타워 1층에 있다. 문의 062-463-2266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광주 자동차 부품업체 '금호HT' 11일 상장

4년간 연평균 <math>57% 성장…세화아이엠씨 이어 올 두번째

광주 중견기업이 유가증권시장(코스 피)에 잇따라 상장하면서 활기를 찾고 있 다. 올해 3월 세화아이엠씨가 코스피에 상장한 이후 자동차 전장부품기업인 ㈜ 금호HT도 오는 11일 상장을 앞두고 있

금호HT는 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스피 상장을 통해 글로 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

송홍기 금호HT 상무이사는 "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상장을 통해 대 외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주주사와 종업원들의 요구도 반영됐다"고 밝혔다.

1988년 설립된 금호HT는 자동차용 전 구(BULB)와 발광다이오드(LED) 모듈 업체로 광주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 며 547명이 근무하고 있다.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4. 7% 증가한 1012억원, 영업이익률은 10.

5%를 기록했다. 지난해 매출액은 1791억 134억원이었다.

금호HT의 지난해 국내 자동차용 전구 시장 점유율은 98%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. LED 모듈 시장 점유율도 28.8%로 1위이다.

최근 4년간 연평균 56.6%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1년 10% 수준이던 시장점 유율을 29%까지 끌어올렸다.

금호HT는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북경현대와 상해 GM, 중국 현지 완성차

업체인 Chery 자동차 등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나서고 있다.

금호HT의 공모가격은 1만원으로 결 정됐다. 2~3일 이틀동안 청약에 나서며 신주 모집 56만5000주, 구주 매출 393만 950주로 총 449만5950주를 공모한다.

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광주·전남 지

역에서 세화아이엠씨가 상장했다. 세화 아이엠씨는 1981년 금호타이어의 자회 사였던 '트라이썬'을 인수해 1999년에 법 인을 설립한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다. 지 역에선 10년만의 코스피 상장이었다.

금호HT와 세화아이엠씨의 상장으로 광주·전남은 18개 코스피 상장사를 갖게 됐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

대기업 간부

회사원, 자영업

'무출산 여성' 희망

VIP 희망 여성 🥨

간호사, 회사원

자영업, 가사

학원(음악)원장, 강사

'무자녀 남성' 희망

27~63서

32~584

29~48세

35~64세

28~48M







